
	보 도 설 명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3.23.(화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36) 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	윤 송 이 사무관 (02-2100-2983)

제 목 : 상호금융대출 조합원 비중 확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.(3.22일, 3.23일자 주요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 내용

- ☐ 주요 언론 등은 3.22일, 3.23일자 “농협·신협 상호금융대출 조합원 비중 대폭 늘린다” 제하의 기사에서
 - 금융위원회가 농협,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”
 - “시행 세칙을 개정해 조합원 중심의 대출영업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. 상호금융권 예대율을 손보는 방식이 유력하다. LH 사태로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”고 보도 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

- ☐ LH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건의 경우 현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(합수본) 수사 및 금감원 검사 중인 상황으로, 이와 관련된 대출 규제 개선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니,
 -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